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한국거래소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5.5.14.
----	------	----	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조사1국	책임자	국 장	권영발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황찬홍	(02-3145-5545)
	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	책임자	부 장	김민교	(02-3774-9020)
		담당자	팀 장	강희정	(02-3774-9021)

‘정치테마주’ 과열 현상에 대한 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 공동대응 강화

- 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, ‘25.5.13.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※ 4.29. 1차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로, 향후에도 협력 채널 상시 가동 예정

-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,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방안 등입니다.
-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(금감원·거래소),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를 통한 과도한 주가 상승 방지(거래소), 적시성 있는 조사 실시 및 무관용 조치(금감원)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긴밀히 공조·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.

- 일부 투자자들은 정치테마주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, 정치테마주중 2β 이상 (72%)이 고점 대비 30% 이상 폭락하였으며, 매매차익 분석 결과 해당종목에서 개인투자자가 손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현재의 과열은 결국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근거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회사의 본질 가치 등에 근거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드립니다.

I.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치상황이 급변하고 소위 '정치 테마주'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해왔음
 - 대상 종목들은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하며 수익성이 낮은 중소형주로 시장 대비 고평가되어 있으며, 변동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*
 - * 평균 영업이익률은 1% 수준에 불과한데 PBR 2.3으로 시장평균 대비 3배 가까이 고평가되었으며, 일간 변동성(표준편차)도 3.3%로 시장평균의 3배 수준 ('25.5.2. 금감원 배포 보도자료 참조)
- '정치 테마주'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높아 이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조하여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함

II. 정치테마주 시장 상황

- 정치테마주(60종목) 중 2/3 이상이 고점 대비 주가가 30% 이상 하락('25.5.9. 기준)하였고 선거일 전·후 주가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하던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과열* 양상은 일시적 비정상 상태임
 - * A종목의 경우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BR은 코스피 평균의 8배 이상 고평가
- 특히,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마가 소멸될 경우 순식간에 주가가 '반토막'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등 추종매매시 투자자 손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



* '24.9.2. 개별 종목의 주가를 100으로 설정하여 산출

- 정치테마주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86.9%로 시장 전체 개인투자자 비중(66.6%)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으로,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분석 결과 42종목에서 손실 발생(최근 1개월 분석, '25.5.9. 기준)

정치테마주 투자주체별 거래 및 계좌수 현황

구 분	거래대금 비중		테마주 거래 계좌 수 비중(%)
	시장 전체(%)	테마주(%)	
개인투자자	66.6	86.9	99.3
기관투자자	10.2	1.5	0.1
외국인투자자	22.0	10.7	0.5
기 타	1.2	0.9	0.1

Ⅲ. 대응 방안

-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실무회의(1차 4.29., 2차 5.13.)를 통해 아래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협력 채널을 상시로 가동할 예정

①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(금감원·거래소)

- 조사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를 확대*하고 시장감시·조사역량 집중

* 금감원(조사1국) 및 한국거래소 거래소 시장감시 부문간 Hot-Line 구축

정치테마주 대응을 위한 기관간 공동 대응 체계

기 관 명	역 할
금융감독원 (조사1국)	· 제보 및 민원 모니터링 · 이상 종목에 대한 매매양태 정밀 분석 및 조사 실시
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	· 초기 단계의 주가 급등락 및 이상매매 모니터링 · 사전적 예방조치, 시장감시 및 심리 강화

②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(금감원·거래소)

- 기업의 실적,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집중 감시
- ① SNS 등 정보 전달매체 및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생성·유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

- ②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, 상한가 굳히기, 허수성주문, 고가매수 및 연속적인 단주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

③ 사전적 예방조치 및 시장감시 강화 (거래소)

- 정치테마주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, 시장경보종목 지정, 조회공시 요구 등을 통해 과도한 주가상승 방지
- 정치테마주 대상 시장교란행위 기획 감시 실시 및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심리 실시

④ 적시성 있는 조사 실시 및 무관용 조치 (금감원)

- 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,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풍문 생성·배포 행위, 이상주문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

IV. 투자자 유의 사항

- 정치 테마주는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드립니다
 - 정치 테마주는 주가 급등락을 예측하여 매매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
 -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 매매보다는 회사의 본질 가치 및 현재 주가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필요
 - 또한, 풍문을 생성,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
- 정치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로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